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ffects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on their Interpersonal Competence

Hyuk-Jun Moo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관계 요인인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하는 고등학교 5곳의 2학년생을 임의표집하였으며, 배포된 650명의 설문지 중 625명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이검증,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는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 중 통제가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활용할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on their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625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 who complet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interpersonal competence differed by gender. Second, a higher level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 higher level of adolescent's positive self-esteem, lower level of adolescent's negative self-esteem, and higher level of psychological separation. Third, positive self-esteem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adolesc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followed by parent's regulation.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self-esteem is very important to promote positive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Therefore, programs to address such issues are strongly needed.

Keywords : Adolescent, Self-Esteem, Psychological Separa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Parents

본 연구는 201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Corresponding Author: Hyuk-Jun Moon(Catholic Univ.)

email: mhyukj@catholic.ac.kr

Received October 11, 2019

Revised November 7, 2019

Accepted February 7, 2020

Published February 29, 2020

1. 서론

청소년기는 가족 중심의 제한적 관계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바람직한 인격발달을 위해 친밀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발달과제라고 할 수 있다[1, 2]. 즉, 청소년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불안, 성격 장애와 같은 정신적 병리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다시 대인관계 문제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3]. 특히, 획일적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과 핵가족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할 여러 발달과업들을 유보시킨 채 부모에게 밀착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대인관계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4].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대표적 시사용어 중 하나로 ‘헬리콥터 맘’은 부모가 자녀 주위를 뒹뒹하며 모든 일에 관여하는 것이고 ‘잔디 깎기 부모’는 자녀 앞의 장애물을 모조리 없애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책임과 집착을 의미한다[5].

대인관계 유능성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6, 7]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긍정적 행동 반응을 의미한다[8]. 특히,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환경 적응 및 안녕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9] 대인관계 유능성의 부재는 우울감의 지속[10]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11], 이는 타인 조망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을 손상시키고[12, 13] 대인관계 상황을 회피하게 만들어 자신의 유능성을 낮게 지각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11].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 유능성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7].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인 불안[14, 15]이나 사회 불안[16, 17]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개인 요인과 부모-자녀 관계 요인이 있으며, 개인 요인에는 성격, 심리적 특질, 정서, 자신에 대한 신념, 인지 행동적 반응 등이 포함된다[18]. 이 중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명제적 신념체계로 자신이 자신에 대해 지각하고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9]. 대인관계의 형성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20, 21, 22]에서 제기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은 그 상황을 지각하고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데 영향을 주고, 대인관계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다[19, 23].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운데 가정, 특히 부모의 영향력은 청소년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이를 입증하듯 박상희와 이남옥[24]은 자녀의 전반적인 삶에서 중요한 대인관계의 기본 틀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의존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분리를 주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25, 26]. 더 나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나 적응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들[27] 뿐만 아니라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중요한 발달과업이다[28]. 즉, 부모-자녀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분화와 독립은 가족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 보다 잘 적응하는 등 대인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회적 기술과 학교 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9]. 그러나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의 가족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집합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강한 유대로 묶여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쉽지가 않다[30]. 한편,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애착관계[31], 양육행동[32], 대인관계 성향[33], 사회적 적응[34] 등의 주제가 연구된 반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직접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관계 요인인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변수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성찰은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정과 학교의 중재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는 성별 차이에 주목하는데 이는 이 시기의 발달특성에 성별 차이가 꾸준히 관찰되어 왔기 때문으로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차별화된 정책 제시의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파악하는 것은 올바른 대인관계 정립을 위해 부모와 교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대인관계 유능성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현장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하는 고등학교 5곳을 선정하여 임의표집 하였다. 설문지 회수율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에 연구에 대한 협조를 의뢰하고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학생들의 동의하에 실시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650부이며,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25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학년은 모두 2학년이었으며, 성별은 남학생 248명(39.7%), 여학생 377명(60.3%)이었다.

2.2 연구도구

2.2.1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35]가 개발하고 이동귀, 한나리[36]가 타당화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한국판(K-ICQ)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는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수는 총 22문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계형성 및 개시' 8문항,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이다. 검사 도구의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써 지각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관계형성 및 개시 .87,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88 타인에 대한 배려 .89,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2.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37]가 개발

하고 최정아[38]가 번역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수는 총 10문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이다. 검사 도구의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써 지각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84, 부정적 자아존중감 .86, 전체 .85로 나타났다.

2.2.3 심리적 분리정도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ik[39]이 개발한 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를 백지숙[40]이 번역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 척도'는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수는 총 27문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통제 8문항, 자아신뢰감 5문항, 연결 14문항이다. 검사 도구의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써 지각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분리정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부모의 통제 .88, 자아신뢰감 .83, 연결 .85, 전체 .87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사용될 설문지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사 2인과 교육학 전공 교수 2명의 검증을 통해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검정의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인관계 유능성(전체)($t=2.41, p<.05$)과 하위 변인인 관계형성 및 개시($t=2.0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der (N=625)

Variables	Gender	Male	Female	t
		(n=248) M(SD)	(n=377) M(SD)	
Interpersonal competence	Formation of relationship	2.87(.45)	2.23(.48)	2.02*
	Claim of right and displeasure	2.64(.50)	2.63(.45)	.14
	Consideration for others	2.98(.37)	3.00(.39)	-.47
	Total	2.83(.33)	2.05(.31)	2.41*

* $p<.05$

3.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 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상관은 $-.19\sim.38$ 의 범위를 지니며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3.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가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among self-esteem, parenting attitudes,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N=625)

		Interpersonal competence			
		Formation of relationship	Claim of right and displeasure	Consideration for others	Total
Self-esteem	Positive self-esteem	.35***	.30***	.38***	.32***
	Negative self-esteem	-.18*	-.17*	-.19*	-.18*
Psychological separation	Parent's regulation	.35***	.33***	.27***	.36***
	Self confidence	.15*	.17*	.18*	.16*
	Parent's connection	.16*	.18*	.17*	.17*

* $p<.05$, ** $p<.001$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는 5 이하(1.05~2.22)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Table 3에서 보면,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 1 단계에서 자아존중감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은 3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적 분리정도 변인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4%로 나타나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에

Table 3. Influences of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N=625)

Variable		Interpersonal competence(Total)			
		Model 1		Model 2	
		B	β	B	β
Self-esteem	Positive self-esteem	.30*	.49**	.23*	.34**
	Negative self-esteem	.04	.07	.04	.06
Psychological separation	Parent's regulation			.13*	.22**
	Self confidence			.04	.07
	Parents connection			.00	.00
F		57.45***		18.84***	
R ²		.31		.35	
ΔR^2					.04

* $p<.05$, ** $p<.001$, *** $p<.001$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의 설명력은 35%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beta=.34, p<.001$)과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 중 부모의 통제($\beta=.22,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밝힌 선행연구결과들[41, 42]을 지지한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성별에 대한 차별적인 기대와 성 정체성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보면,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한 박지연[4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 친구와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대인관계 만족도 또한 낮아졌음을 보고한 연구결과[44]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행동에서도 안정이 되어 건강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이민선[45]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와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분리정도가 자녀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결과[46]와 일치하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처 기술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본 이지선[47]의 연구결과를 통해 설명 가능하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이 우선적임[3, 48]을 확인시키는 결과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치명적인 결점을 발견할 것이라고 쉽게 믿는 경향이 있으며[49],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수용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 때문에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들[22, 50, 51]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일상적인 생활에서 청소년 본인,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의 여러 환경에서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신의 행동을 선택·결정하는 능력을 신뢰할수록 긍정적인 대인관계 유능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이들의 자아존중감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청소년이 욕구와 감정표현을 명확히 표출하도록 격려, 지원하고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의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심리적 하위요인인 부모의 통제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통제에서 오는 과도한 불안, 죄의식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리가 대인관계에서 갈등상황을 잘 대처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진솔하게 개방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결과들[52, 53, 54]과 맥을 같이 하며, 자녀가 독립할 시점까지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율성과 독립심이 낮아 여전히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정은선[5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부모의 통제로부터 적극적인 독립을 통해 자율성을 확립한 자녀일수록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예측하며 자율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성립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수준,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 개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부모로부터 적절한 독립성 확보와 친밀성을 유지하는 균형적 관계 형성이 중

요하며, 가정과 사회, 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연계 하에 활성화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및 가족의 지지적, 수용적인 상호작용을 다루는 가족상담적 개입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심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조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대인관계 유능성 형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상을 보이는 청소년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 지역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환경을 고려한 광범위한 대상을 표집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 중 일부 변인만을 다루었으므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 환경을 포함한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로 설명하였는데,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분리정도는 내적 변인으로 상호 관련성이 높아 개인 내 변인 외에 사회적 변인이 추가된다면 보다 풍부한 분석과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가정의 역할을 강조해 왔지만 대인관계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시기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활용할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J. H. Park, Y. J. Cho, "Romantic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4, No.7, pp.113-124, 2006.
- [2]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1963.
- [3] J. G. Holmes, D. C. Marigold, M. Ross, "Fostering relationship resilience: An intervention for low self-esteem individua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46, No.4, pp.624-630, 2010.
- [4] S. C. Park, K. I. Baik,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fficacy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tress coping strategy", *Journal of Buddhist Counselling*, Vol.3, No.1, pp.79-96, 2011.
- [5] C. Lee, H. Jeon. "The effect of family differentiatio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6, pp.465-483, 2015.
- [6] E. E. Graham, J. P. Mazer,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development project: The intersection of theory and practice", *Communication Teacher*, Vol.25, No.3, pp.159-165, 2011.
- [7] E. Diner, S. Oisho, R. E. Lucas,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Vol.2, pp.187-194, 2009.
- [8] H. J. Kwon, *Effect of perfectionism tendency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orea Graduate School, Korea, 2013.
- [9] J. H. Kwon, S. A. Yook, S. B. Woo, H. Cho, "The Effect of Offline and On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ring",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Vol.30, No.2, pp.5-32, 2013.
- [10] P. M. Lewinsohn, W. Mischel, W. Chaplin, R. Barton, "Social competence and depression: The role of illusory self-percep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89, No.2, pp.203-212, 1980. DOI: <http://dx.doi.org/10.1177/0146167284104014>
- [11] R. M. McFall,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skills", *Behavioral Assessment*, Vol.4, No.1, pp.1-33, 1982.
- [12] J. V. Clark, H. Arkowitz,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Vol.36, No.1, pp.211-221, 1975. DOI: <http://dx.doi.org/10.2466/pr0.1975.36.1.211>
- [13] N. R. Shin, C. Y. Ahn, "The relationships among adult attachment styles, social anxiety, self-concept, self-efficacy, coping strategy,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3, No.4,

- pp.949-968, 2004.
- [14] H. J. Cho, J. M. Kim,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representation and others repres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social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1, pp.201-222, 2011.
- [15] M. S. Park, K. M. Chae,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beliefs and social self-efficac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34, No.2, pp.111-129, 2013.
- [16] M. Jung,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social skill,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A mediation model of shynes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3, pp.1995-2010, 2013.
DOI: <http://dx.doi.org/10.15703/kjc.14.3.201306.1995>
- [17] J. C. Sahl, L. H. Cohen, K. B. Dasch, "Host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daily dependent stress: A daily model of stress gener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33, No.2, pp.199-210, 2009.
- [18] D. K. Laspley, J. Edgerton,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80, No.4, pp.484-493, 2002.
- [19] J. G. Holmes, D. C. Marigold, M. Ross, "Fostering relationship resilience: An intervention for low self-esteem individua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46, No.4, pp.624-630, 2010.
- [20] J. R. Baccus, M. W. Baldwin, S. D. Dandeneau, M. Sakellaropoulo, J. C. Pruessner, "Cutting stress off at the pass: Reducing vigilance and responsiveness to social threat by manipulating atten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3, No.4, pp.651-666, 2007.
- [21] G. M. Bellavia, S. L. Murray, P. Rose, D. W. Griffin, "Once hurt, twice hurtful: how perceived regard regulates daily marit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4, No.1, pp.126-147, 2003.
- [22] J. V. Cavallo, G. M. Fitzsimons, J. G. Holmes, "Taking chances in the face of threat: Romantic risk regulation and approach motiv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5, No.6, pp.737-751, 2009.
DOI: <http://dx.doi.org/10.1177/0146167209332742>
- [23] Lee, M. S., Chae, K. M.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12(1), 63-75, 2012.
- [24] S. H. Park, N. O. Lee, "The Influence of Parents Attachment on Interpersonal Problems: Focus on Mediating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Vol.4, No.1, pp.1-18, 2014.
- [25] P. Blos,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9.
- [26] J. I. Lee, S. Y. Park,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adolescents: Influences of mother's attachment experience, psychological control behavior and adolescents'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9, No.3, pp.175-189, 2008.
- [27] H. J. Cho, Y. S. Seo,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college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freshme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2, pp.385-411, 2010.
- [28] Y. H. Choi, "Relationship among undergraduates' differentiation of self, adult attachment, relation addiction and fear of intim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2, pp.689-704, 2012.
- [29] J. N. Kim,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The Role of Social Skills*, Master's thesis, Kyungnam Graduate School, Korea, 2008.
- [30] D. L. Blustein, D. E. P. Schultheiss,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1, No.2, pp.248-255, 1994.
- [31] E. Y. Kim, *A study 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socia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 Master's thesis, Ewha Graduate School, Korea, 1993.
- [32] J. H. Kwon, S. J. Lee,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on self-control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The Korea Journal of Youth Research*, Vol.24, No.2, pp.35-62, 2013.
- [33] S. H. Kim, J. W. Kim,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7, No.4, pp.1-20, 2003.
- [34] G. N. Holmbeck, C. Leake, "Separation-individu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8, No.5, pp.563-581, 1999.
DOI: <http://dx.doi.org/10.1023/A:1021654626328>
- [35]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No.6, pp.991-1008, 1988.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5.6.991>
- [36] D. G. Lee, N. R. Ha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1, pp.137-156, 2010.
- [37]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 Vol.36, No.3, pp.560-562, 1965.
DOI: <http://dx.doi.org/10.1515/9781400876136>
- [38] J. A. Choi, *The effects of self consciousness and self esteem on attitude toward counseling*, Master's thesis, Yonsei Graduate School, Korea, 1996.
- [39] J. Baik, *Individuation, college adjustment and ego identity: Construction of a measure of individuation and psychometric analysi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SA, 1997.
- [40] J. S. Baik, "Attachment to paren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Vol.18, No.1, pp.127-137, 2000.
- [41] N. Y. Heo, "The relation of type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erceived by the adolescent and their interpersonal orientation", *Journal of Evaluation on Counseling*, Vol.3, No.2, pp.59-74, 2010.
- [42] J. Lee, H. Chung, "The relationship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differentiation with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1, No.1, pp.99-121, 2016.
- [43] J. Y.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elf esteem up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2008.
- [44] Y. J. Park,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onbu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2011.
- [45] M.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Master's thesis, Sungshin Womans Graduate School, Korea, 2011.
- [46] S. H. Kim, J. W. Kim,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7, No.4, pp.1-20, 2003.
- [47] J. S. Lee, *A study education programs for psychological healing of youth-Focused on making dolls*, Master's thesis, Dong-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2015.
- [48] J. P. Comer, N. M. Haynes, M. Humilton-Lee, J. Boger, D. Rollock, "Dimensions of children's self-concept as predictors of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127, No.3, pp.321-329, 1987.
- [49] J. Oh, H. Yoon,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relation attachment with par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2, pp.1-12, 2017.
- [50] S. L. Murray, P. Rose, G. M. Bellavia, J. G. Holmes, A. G. Kusche, "When rejection stings: How self-esteem constrains relationship-enhancement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3, No.3, pp.556-573, 2002.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83.3.556>
- [51] S. L. Murray, P. Rose, G. M. Bellavia, J. G. Holmes, A. G. Kusche, "When rejection stings: How self-esteem constrains relationship-enhancement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3, No.3, pp.556-573, 2002.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83.3.556>
- [52] K. D. Vohs, T. F. Heatherton, "Self-Esteem and threats to self: Implications for self-construals and interpersonal percep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1, No.6, pp.1103-1118, 2001.
- [53] S. J. Kang, Y. H. Choi, "The influence of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abilities: The intermediate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soci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18, No.3, pp.53-68, 2011.
- [54] E. S. Jung, *The effects of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roles of hardiness and perfectionism as mediators*, Ph.D. dissertation, Hanyang Graduate School, Korea, 2008.

문 혁 준(Hyuk-Jun Moon)

[정회원]



- 1997년 5월 : Michigan State University Ph. D.
- 1999년 9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부모-자녀관계, 보육정책